

전기 중고차 시장 확대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개선 과제

천지연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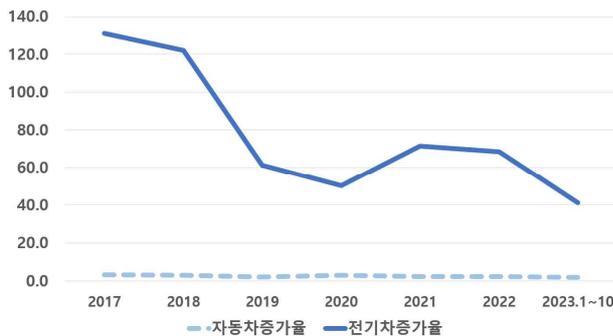
요약

전기차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중고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판매 증가가 예상됨. 한편,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점검 항목이 추가됨. 전기차의 경우 상태 점검 및 수리 가능 업체 부족, 관련 기술 제약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소비자의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의 이해도 제고, 중고 전기차의 보장조건 점검 및 보장기간 확대 등을 통해 책임보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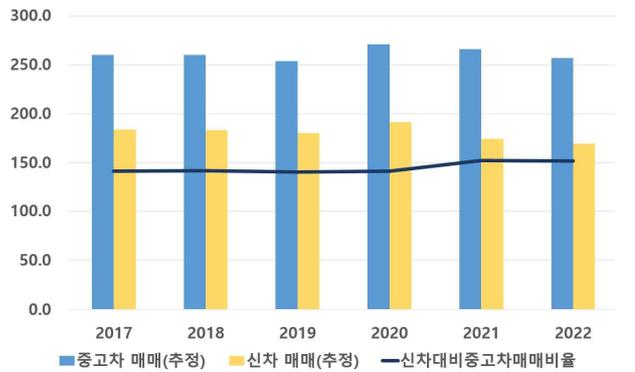
- 2020년 이후 전기차 등록 대수 연평균 증가율은 약 56%로 전기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고차 시장의 전기차 비중도 함께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신차 판매 대수 대비 중고차 판매 대수 비율은 1.4~1.5배 수준임
 - 중고차 판매 대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이전등록 통계의 업자매매(매입, 매도, 상사 간 이전등록, 알선 이전등록) 및 개인 간 매매(당사자 매매, 증여, 상속, 촉탁, 기타) 통계를 통해 추정이 가능함¹⁾
 - 신차 판매 대수는 자동차 신규등록현황 통계 중 신조차 및 수입차 대수를 합하여 추정하였음
 - 2022년 총 중고차 판매 대수는 256.8만 대로 신차 판매 대수(169만 대)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전기차 판매 증가와 함께 중고 전기차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3년 1~5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중고차 등록매물 대수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6.9%,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²⁾
 - 다만, 2023년 1~10월 전기차 총 등록 대수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41.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1년(71.5%) 및 2022년(68.4%)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향후 중고 전기차 등록매물 대수의 증가 폭 또한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2019년 판매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2020년 6월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점검 항목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중고차를 위한 항목이 추가됨
 - 2017년 법률 개정으로 2019년부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이 의무화됨

1) 본고에서 사용한 중고차 판매 대수 추정치는 업자매매의 경우 매입과 매도 양측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전등록 통계의 업자매매 수치의 50%를 중복된 건으로 가정하여 중고차 판매 대수를 추정하였음
 2) 엔카닷컴(2023. 6. 16), "친환경 트렌드에 중고차도 EV/HEV 주목"

〈그림 1〉 자동차 및 전기차 총 등록 대수 증가율(동기 대비) 〈그림 2〉 연도별 중고차 및 신차 총 판매 대수 추이(추정치)
(단위: %) (단위: 만대)



자료: 국토교통부



주: 중고차 판매 대수 추정치는 (업자매매÷2)+개인 간 매매, 신차 판매 대수는 신규등록현황 중 신조차 및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의 합임

자료: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4항에 따르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해야 하며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주행거리 20만km 초과차량과 대형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가입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인도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내에 발생한 피해를 대상으로 보장한도 내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음
 -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의 차량 상태가 상이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함
 - 예를 들어 이미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누유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차량의 누유 시 해당 문제에 대한 보험료가 지급되나, 기록부에 이미 표기가 되어 있다면 보험료는 지급되지 않음
 - 전기 및 수소 등 친환경 중고차 매매 증가에 대응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서식 항목에 충전구 절연 상태, 구동축전지 격리 상태, 고전원전기배선 상태 등 고전원전기장치 항목이 추가됨³⁾
- 전기차 상태 점검 및 수리 가능한 업체가 다소 부족하며, 전기차 점검 관련 기술이 제한되어 있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장치진단기(KADIS) 등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 장비를 도입한 민간검사소는 17%에 불과하며 수리가능 업체 비중도 5% 미만으로⁴⁾ 실제 차량 상태 점검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 국내외에서 전기차 관련 안전기술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 및 진단과 같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⁵⁾
 - 국내의 경우 에너지 공급 및 차단, 충전상태 진단, 배터리 수명 상태, 예측, 이상 현상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
 - 독일의 경우 진단기를 활용한 고전압 검사, 배터리 전압치(최고-최저 검사), 배터리 냉각시스템 검사, 차대동력계를 활용한 검사 등 전기차에 대한 검사 방법 및 기준 개발을 완료하였음
 - 미국의 경우 축적된 전기차 배터리 상태 데이터에서 셀 단위의 이상 진단 및 예후 분석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함

3) 2020년 6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일부 개정(2020. 9. 27 시행)

4) 천지연(2023. 8), 「전기차 배터리 수리 현황과 과제」,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2022. 6),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 및 통합 안전 관리 기술 개발 기획」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업자, 소비자, 보험회사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연료별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이해도를 제고하고, 전기차 보장 조건 점검 및 보장기간 확대 등 전기차에 대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예를 들면 법률로 고시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서식⁶⁾의 항목·해당 부품별 점검상태에 ‘해당없음’ 항목을 추가하면 연료별·종류별로 상이한 자동차의 세부 부품에 대한 점검 항목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중고 자동차 상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대상 자동차에 관련 부품이 없는 경우에도 ‘양호’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⁷⁾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상태를 오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전기차와 비전기차의 경우 세부 부품이 상이하나 법률로 고시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서식에 따르면 사용 연료와 관계없이 같은 서식을 사용하고 있고, 점검 상태 항목은 ‘양호’ 또는 ‘불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의 경우 자동차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확인 대상 부품 항목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음
- 전기차 배터리 상태 점검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책임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향후 전기차 배터리 상태 점검과 관련한 항목의 추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다만, 배터리 충·방전 시간의 경우 기상 조건 등의 외부온도나 난방, 에어컨 등의 전자장비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상기준을 보다 구체화, 명료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실효성 강화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라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자 등 기존 중고차 업계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2023년 9월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주행거리 5년, 10만km 미만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자사 차량에 한해 인증(Certified) 중고차 판매를 개시함⁸⁾
 - 동반성장위원회는 과거 2013년 및 2016년 중고차 사업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차량 완성업체를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⁹⁾
-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중고차 구입에 대한 불만은 품질, 차량 상태 불신 등 차량 품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고차 불만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고차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불만족 이유로 품질 37.6%, 딜러 불신 26.4% 등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중고차 구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차량 상태 불신 41.3%, 사기 피해 우려 25% 등으로 답하였음¹⁰⁾

6) 자동차관리법 별지 제82호 서식

7) 한국소비자원(2021. 6),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안전실태조사」

8) 다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양 사의 2년(23. 5~24. 4 및 24. 5~25. 4)간 총 거래 대수 중 판매 대수 비중을 현대자동차는 2.9% 및 4.1%, 기아는 2.1% 및 2.9%로 제한하였음

9)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2. 4. 28), “중기부, 현대차·기아차에 사업조정 권고”

10)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19. 11. 4), “한경연, ‘중고차 시장 소비자인식’ 조사”